

# 세월의 상처, 삶의 변방

## 내 서가에 꽂힌 몇 권의 자전소설집

고재중

시인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가까워오는 절기다. 이제 하늘은 드높고 햇살은 투명하다. 들판엔 샛노랗게 익어가는 나락이삭이 일렁이고, 앞집 대추나무의 대추열매는 바알갈게 물들어간다. 또 삼밭의 고개 숙인 수숫대 위로 고추잠자리가 편대 지어 날고, 강변 조약돌밭엔 새빨간 고추명석이 여기저기 널린다.

밤으로는 흰 이슬이 내리고, 기러기가 날아오고 제비가 돌아가며, 못새들이 먹이를 저장하고 우뢰가 소리를 거두는가 하면, 겨울철 땅 속에서 잠을 자는 벌레들이 창을 막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이 백로와 추분지절에 나는 곤잘 세월의 오고 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곤 한다.

특히나 환한 달빛이 뒷창문에 맺음을 가득 치고, 섬돌 밑에서 찌르레기며 귀뚜라미가 울어끓는 밤이면 웬지 나뭇잎 서걱이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고, 풀잎들이 스치는 소리도 그렇고, 뒤란 대숲 위에서 부시럭부시럭 몸을 뒤척이는 참새떼 소리마저 온몸에 한기 들게 할 때, 문득 세월은 그 무슨 형상의 옷을 입고 내 옆을 유유히 스쳐가며 나를 마구 질책하고 조롱해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세월은, 시간은 이렇게 네 옆을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고 또 저승사자처럼 다가서는데, 넌 여전히 세월의 문 밖에서 그렇게 서성거릴 참이나, 네 아무리 그렇게 밖에서 서성거리도 너는 벌써 세월의 손아귀 안에서 갈 바 물라 해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꼭 가르쳐줘야 하겠느냐며, 나의 세상물정 모르는 삶을 나무라곤 하는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것이다.

### 세월의 의미에 대한 반추

서른 다섯살의 나이에 《세월》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자전적 성장소설을 내버린(!) 한 여자의 소설집을 얼마 전에 보았다. 실제 소설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과 서른 다섯의 나이에 세월의 의미를 자기의 삶 속에서 반추해내, 어떤 깨달음이나 철학을 깊이있게 천착해 내야 할 소설로까지 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 독서행위였던 것이다.

물론 독후감은 별로였던 듯싶다. 부모의 불화와 한 남자로부터 받은, 결코 의도하지 않은 상처로 인해 생의 절반을 상실의 세월로 살아온 주인공의 삶을 작가의 말처럼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은 세월을 살아보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해선 안될 것”이기에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작가는 “이 글은 내가 건넨 강이 더 깊다거나 내가 넘은 산이 제일 험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널 때,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떻게 세상을 배웠는가에 대한 기록”이라며 미리 비판의 길을 봉쇄하는 데야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녀가 그 기록을 자기 삶의 지침서로 서랍 속에 깊숙이 감추어놓지 않고 세상에 내놓은 이상,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의 방식은 비평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인공의 삶은 너무 자폐적이었던 것이다. 그 주인공의 상실과 불행의 세월이 어떠한 이유로든 남과 비교될 수 없다 할지라도 초객관적으로 보아서, 가령 농민운동가 장영근의 수기인 《농민의 마음 하늘의 마음》에 나오는 장씨의 삶 같은 경우에는 폭과 깊이 그 어떤 것으로도 도대체 따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장씨는 처참과 아픔을 극복하고 당당한 농사꾼의 길을 개척하여 오늘까지 살고 있고, 그녀는 그런 절망과 우울의 삶을 이제 그만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인기작가의 반열에서 있는 것, 그것 만큼은 비교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내 서가에 이런 자전소설집이나 어떤 인간승리자들의 수기 및 자서전 등이 꽤 꽂혀 있는 셈이다. 그중 몇 권만 들면 김성동의 《길》,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 이승우의 《생의 이면》 등의 소설과 돌베개출판사의 《전태일 평전》, 이영희교수의 《역정》, 최근 사다놓고 아직 읽지 못한 《김학철 자서전》, 등이 그것들이다.

모두가 이 땅의 부조리한 세월 속을 헤쳐오며 자신을 끝내 절망과 패배 속에

방치하지 못하고, 이를 ‘이빨 온통 으스러지는’ 의지로 극복해내곤 하는 역정들을 담담하게 그려내어 삶의 숭고한 의미, 그리고 세월의 무자비함과 고마움을 아울러 느끼게 하는데, 특히 한 사람의 삶이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 것으로 이분화 되지 않고, 그 뜻하는 바로 곧 총체적 삶을 지향하고 그 뜻하는 바로 세월의 신고간난을 마침내 극복해내는 모습들은 우리를 진한 감동으로 이끈다.

###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과 세월에 대한  
너무도 절실한 것들을  
몰래 간직하고 있으리라.  
그 세월에 할퀴인 상처가  
너무 깊어 변방의 삶으로 떠들며  
생의 날들에 대한 소망으로  
나날을 이겨내고 있으리라.

그런데 이런 성장소설류나 자전적 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세월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은 경험을 깊게 했거나 유달리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기 십상이다.

나 역시 어느 작가들의 성장기 모음에 우여곡절 끝에 나의 서른살까지의 삶을 간단히 스케치해서 게재한 적이 있는데, 그 삶의 절실함에 울었다는 어느 중견소설가로부터 장편소설화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꽤 오래된 이야기로 당시 선금도 받고 우수한 계간지에 연재하겠다는 계약까지 마쳤지만, 나는 그때 결국 그걸 소설로 쓰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불과 서른 서너살을 살아온 내가 아무리 삶을 절실하게 살았다 한들 삶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 것이며, 더욱이 세월 혹은 역사와의 상관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어찌 이 나이에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때문이었다. 좌고우면할 것 없이 쓰면 못쓸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쉽게 써서 팔아먹어버리기에 내가 간직한 생의 체형적 진실들이 너무도 아까웠다. 물론 불혹이 가까운 오늘까지도 나는

여전히 삶의 미궁에서 헤매고 있으며, 그러기에 또한 향시 세월의 문밖에서 서성이며 끊임없이 외로움과 그리움이나 살찌우고 있는 형편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 빛나는 생의 날들에 대한 소망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회의의 연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는데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날은 가고, 세월은 성큼성큼 뒷산 재를 넘어가버리곤 하는 나날을 살아오기 벌써 39년째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만 깊어지는 가을밤, 먼 데서 기적소리는 들려와 다시 산모퉁이로 사라져버리는 밤, 내 마음의 구중구결 속에선 무엇인가 벌떡벌떡 일어서며 무어라고 무어라고 자꾸만 불러대어 온 세상을 공명시키고, 그때쯤 내 생의 안마당에선 오동잎 푹푹 지는 소리도 한량없이 들리는 밤, 그 불러대는 것이 삶인지 사랑인지 세월인지는 몰라도 전혀 새로운 것이 다가설 것 같은 이 꿈은 무엇인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심화시키기는 커녕, 하다 못해 어느 젊은 시인의 말대로 ‘삶이란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 널렸다 걷히면서 다시 더러워질 결심을 바투 여미는 흰 빨래의 반짝임 같은 것’이라는 정도의 발견조차도 못해내고, 되레 세월의 강물을 거스르며 설렁 내 머리채 잡히고, 등허리 밟히고, 내 그나마의 청춘 북어채마냥 갈기갈기 찢기 울지라도 무엇인가 한번 확 뚫렸으면 하는 그리움이나 키우고 있는 것이라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과 세월에 대한 너무도 절실한 것들을 몰래 간직하고 있으리라. 그 세월에 할퀴인 상처가 너무 깊어 늘 변방의 삶으로 떠들며 무엇인가 빛나는 생의 날들에 대한 소망으로 나날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기도 하리라. 나이 서른 다섯에 세월에 대하여 말해버리고 삶과 그만 화해를 해버린 위의 매우 현실적인 여성작가와와는 또 다르게, 더 깊고 더 높은 그 무슨 생의 강물소리를 얻기 위해 오늘도 긴긴 고독의 세월과 싸우고 있는 자들, 나는 아무래도 그들 편인 것이다. ❖